

# 한국양육의 경제성과 전망

조 광 호  
(전 남 대 농대교수)

## I. 서 론

우리나라에 양육업이 시작된지 40년이 지나 오면서, 그동안 사슴사육이 일부 특수층이나 부유층의 관상용이나 보신을 위한 자가 소비형태의 사육에서 일반 농가의 소득원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즉 1967년에 불과 450여두를 사육하던 사슴이 1989년에는 4,822호에 89,346(한국양육협회 자료) 두수를 사육할 정도로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사슴사육이 일반농가의 소득원으로 대중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동안 축산 분야의 관심밖에 있던 사슴사육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와 함께 수입 대체 작목으로 사육이 권장되면서 사슴사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사슴을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가축으로 지목하면서 적극 권장되기 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슴사육이 일반 농가의 소득원으로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또 이를 농가에 권장함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사육을 권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슴사육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 농가 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 대상 농가가 전남 지방에 국한된 것이었고, Sample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없을 뿐아니라외국의 사례 역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육체계(우리처럼 녹용·녹혈 생산을 위한 사육이 아닌 녹육을 생산하는데 목적)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II. 사슴농가의 특성과 일반적 성향

전체 조사 농가 36호의 평균 사육 기간은 6.5년으로, 15호가 5년이하였고, 13호가 5~10년, 8호가 10년 이상이였다. 또한 시작시의 사육 규모는 평균 6.9두 이었으며, 현재 평균 사육 규모는 17.6두였다. 이들 중 78%인 28호는 직접 관리를 하였으나, 22%인 8호는 관리자에 의한 사육이었고, 사육 형태로는 조사 농가의 50%가 겸업, 39%가 부업형이었으며, 전업이나 기업형은 4호(11%)

에 불과 하였다.

즉 대부분의 사육 농가가 부업이나 타 영농과 겸업을 하는 형태였다.

사슴을 사육한 동기로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가 전체 응답수의 2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상용으로서가 22.2%,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16.7%, 노동력이 적게 들어서가 13.0%, 사료비가 적게 들어서가 6.5%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득보다는 관상용이나 보신용으로 사슴사육을 시작한 농가가 많은 것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의미의 사육이 주가 되었음을 말한다.

조사 농가의 품종별 사육두수를 보면 [表1]과 같다. 조사 농가 36호중 엘크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1호뿐이었고, 나머지 35호는 꽃사슴만 사육(23호)하거나, 주로 꽃사슴에 일부 엘크 또는 레드디어를 함께 사육하는 농가로서, 조사 농가 평균 꽃사슴 15.6두, 레드디어 0.3두, 엘크 1.7두를 사육하였다(100여두 사육 농가 2호 제외한 것임).

조사 농가의 사슴사육 특징은 꽃사슴이 중심이 되었고, 1~2두의 엘크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내의 생산물 수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1> 조사농가의 품종별, 성별 사육두수

구분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계
암	9.0	0.2	1.0	10.2
수	6.6	0.1	0.7	7.4
계	15.6	0.3	1.7	17.6

이는 조사 대상 농가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7%가 꽃사슴이라 하였고, 22.2%가 엘크라 응답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나머지는 레드디어 또는 교잡종임). 그 이유로서는 판로의 유리성과 관리의 용이가 각각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익성이 높아서 15.7%순 이어서 판로 문제가 품종 선택의 중요 요인임을 보였다. 조사 농가의 앞으로 사육 규모는 호당 평균 꽃사슴 34두, 엘크 6두(합계 40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가족 노동력만으로 사육 가능한 사육 규모는 50두 정도로 보고 있었다.

사슴 사육이 타 가축 사육보다 유리한 점으로는 노동력이 적게 소요된다는 응답이 25.5% 질병이 적다는 응답이 20.8%, 수익성이 높다가 18.9%, 사육하기가 쉽다가 17.9%, 사료비가 적게 든다가 15.1%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쉽고, 수익이 타 가축보다 다소 높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슴사육의 애로점으로는 생산물(녹용·녹혈)판매 곤란이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질병 발생시 처치 곤란이 23.4%, 사슴 가격이 비싸서 사육상 위험이 크다는 응답이 16.8%, 사육 기술 부족이 11.2%, 생산물 가격등 정보 획득 곤란이 8.4%순으로 나타나 수요처 확보와 사양 관리 기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 Ⅲ. 사슴 사육의 경제성

사슴 사육이 일반 축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목보다 경제적인 유리성이 있어야 하며,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비교할 때도 국내에서의 사슴 사육에 따른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사슴 사육이 일부 특수층의 관상용이나 애완용으로 사육될 때는 경

제적인 면을 보지 않지만, 농가의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슴사육으로 인한 수익이 다른 작목보다 높으며(자본 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 등), 사육상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비할 때는 수입 녹용에 비해 생산비가 어떤가를 검토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외국의 사슴 사육은 우리나라처럼 녹용과 녹혈 중심의 생산이라기보다 녹육, 녹신, 녹미 녹피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직접 비교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조차 그동안 사슴 사육이 대중화되지 못한 관계로, 경제성이나 기술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서 당면 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

### 1. 조사 농가의 자원 이용

사슴 사육농가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表 2>와 같았다. 즉 사료 재배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용 면적(사슴우리와 기타 부속 토지)은 호당 평균 629평 정도였으며, 1두당은 평균 39.2평이었다. 사료 채취를 위한 산지를 제외한 사료재배지(사료포) 면적은 호당 평균 711평 정도 이용하였으며, 1두당으로는 약 42평 정도의 사료포를 확보하여 이용하였고, 대부분의 조사료는 잡관목이나 구입 조사료를 활용하였으며, 벗짚은 사육두수가 많은 일부 농가에서 활용하였다. 이는 재배 사료보다는 산야초나 잡관목에 의해 조사료 공급을 의존함을 말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산야초등을 채취하여 조사료를 급여한 반면 규모가 큰 농가

는 사료포나 초지에 이탈리아라이스그라스, 옥수수, 수단그라스, 오차드그라스등을 재배하여 급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表 2참조>

사슴 사육농가의 건물·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액은 <表 3>과 같다. 즉 조사 농가 전체의 호당 이의 투자액은 5,781천원이었고, 1두당 투자액은 366.8천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1두당 투자액은 적은 편이었다. 사슴 사육에 대한 건물·시설·장비는 양돈이나 낙농보다는 적은편이며, 이에 는 사슴우리와 그늘막, 사료창고, 환축분리용 칸막이, 사료조, 절각장 시설, 리어커, 경운기, 마취용 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즉 사육에 따른 건물 투자가 적었고, 다만 사슴우리와 경운기 정도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슴을 제외한 투자액은 많지 않았다.

사슴 사육시의 1두당 연간 노동 투입량은 사육규모가 클수록 크게 감소 하였다. 즉 10두이하의 규모에서는 1두당 약 120시간이 투입되었으나, 21두 이상에서는 43.6시간 정도를 투입하였으며, 전체 조사 농가의 1두당 평균 노동 투입량은 77.4시간이었다(<表 4참조>). 1두당 연간 노동 투입량을 품종별이나 성별 또는 성륙, 자육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기가 곤란하였다. 즉 한 농가에서 꽃사슴과 엘크등을 함께 사육하고, 자육과 성륙, 암컷과 숫컷을 함께 사육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조사할 수 없어, 단순히 전체 투입 노동력을 사육두수로 나눠서 1두당 투입 노동력으로 환산하였고, 다만 분만 관리와 생산물 채취에 대한 부분만 암수를 구분하였을 뿐이다.

투입 노동력중에서 사료 채취부분에 대한 투입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료급여, 청소 순이었고, 나머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

表2. 사슴 사육농가의 토지 이용

구	분	사 육 규 모			전 체
		10 두이하	11 ~ 12 두	21 두이상	
호	당 사 육 규 모	7.0	15.5	32.8	17.6
호	당 사 육 토 지 면 적 (평)	387.8	510.7	1094.4	629.1
호	당 사 육 토 지 평 가 액 (천원)	4278.0	6593.3	10111.1	6843.5
1	두 당 사 육 토 지 면 적 (평)	49.1	33.3	38.0	39.2
1	두 당 사 육 토 지 평 가 액 (천원)	562.0	423.6	329.7	439.4
호	당 사 료 포 면 적 (평)	355.5	543.3	1528.6	711.3
1	두 당 사 료 포 면 적 (평)	51.1	34.3	46.1	41.9

주: 0. 사육토지 면적에는 사료포 면적이 제외 되었음.

0. 1두당으로 환산한 것은 사슴의 품종, 성별,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음.

表3. 사슴사육농가의 건물·시설·장비 투자액

구	분	사 육 규 모			전 체
		10 두이하	11 ~ 20 두	21 두이상	
호	당 건물, 시설·장비 투자액 (천원)	3295.5	5723.7	8637.2	5780.7
1	두 당 투자액 (천원)	434.7	363.9	296.3	366.8

表4. 사슴 사육농가의 노동력 투입(꽃사슴 기준)

구	분	사 육 규 모			전 체	호 당 평 균
		시간/두/년				
		10 두이하	11 ~ 20 두	21 두이상		
사	료 급 여	36.5	21.6	15.0	24.2	342.0
사	료 채 취	43.9	34.1	20.6	33.4	577.1
청	소	19.5	6.8	3.8	9.8	114.6
방	역 · 위 생	0.3	0.6	0.2	0.4	5.8
분	만 관 리 (㉸)	(0.1)	(0.7)	(0.1)	(0.3)	(3.1)
생	산 물 채 취 (㉸)	1.5	0.9	1.0	1.1	11.1
기	타 관 리	18.1	5.5	3.0	8.6	97.6
계		199.9 (118.4)	69.5 (69.3)	43.6 (42.7)	77.4 (76.7)	

주: 0. ( )밖은 숫컷, ( )안은 암컷에 대한 시간임.

다. 품종간의 노동 투입시간에서는 조사료 급여량이 다르기 때문에 산야초등 사료 채취 시간에서의 차를 둘 수 있을 뿐, 다른 부분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표 4 참조).

## 2. 수입과 비용

사슴 사육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 농가마다 녹용과 녹혈을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도 다르며, 농가에 따라서는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자가 소비 혹은 이웃 친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료의 경우 산야초, 잠관목 등 채취사료 위주로 급여하는 농가와 재배사료 중심으로 급여하는 농가가 있어,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여러 품종(꽃사슴의 경우도 일본계, 대만계, 만주계가 있으며, 한농가에 꽃사슴과 엘크등을 함께 사육)을 함께 사육하였고, 그것도 자육과 성육, 숫컷과 암컷을 함께 사육하므로 품종별 성별 1두당 비용을 계산하기가 곤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조사 농가수가 적은데다 다양하게 구분해서 분석할때 한가지 처리별 S-sample 수가 적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분석하기도 곤란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 품종중 꽃사슴(각계통을 한가지로 보았음)과 엘크 숫컷에 대한 1년간의 수입과 비용에 대해 분석코자 하였으며, 암컷에 대한 것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表 5〉에서 꽃사슴의 경우, 생산물 판매시 대부분이 녹용과 녹혈을 동시에 처분하므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일부 농가(만주계 교잡계통 사육농가)가 구분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리하였다.

表 5. 1두당 연간 수입과 비용 (성육 숫컷 기준)

구 분	단 위 : 천 원	
	꽃사슴	엘크
녹 용	618.2	3327.3
조수의 녹 혈	200.0	1362.5
계	818.2	4689.8
가 축 비	70.0	690.0
사 료 비	126.7	554.4
생산비 (농후사료)	(44.4)	(320.6)
(조사료)	(82.3)	(233.8)
질 각 비	17.5	72.6
건물, 시설 감가상각비	28.8	28.8
기 타 비 용	35.2	67.9
노 력 비	137.6	328.4
자 본 이 자	47.9	76.7
토 지 용 역 비	17.1	17.1
계	480.8	1835.9
순 수 익	337.4	2853.9
순 수익 율 (%)	41.2	60.9

- 주: ○. 꽃사슴의 경우 녹혈과 녹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구분 판매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분리 하였음.
- . 1두당년간 농후사료 급여량은 꽃사슴 250.6 kg, 엘크 1821.5 kg, 레드디어 900 kg이었음.
- . 조사료비는 구입조사료비에 사료 채취 노력비를 합산 하였음.
- . 기타 비용에는 진료위생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소농구비, 제재료비, 임차료 및 차입금이자, 제 공과금과 기타 잡비가 포함되었음.
- . 건물, 시설, 상각비와 토지용역비를 꽃사슴과 엘크가 같도록 한 것은 구분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임.
- . 토지용역비는 인근 비슷한 토지의 임차료에 준해 계산 하였음.

꽃사슴 숫컷 성록 1두당 연간 조수익인 818.3천원, 생산비는 480.8천원으로, 1두당 연간 337.4천원의 순수익을 올려, 순수익율이 41.2%인 반면, 엘크는 숫컷 성록 1두당 연간 4689.8천원의 조수익에 생산비가 1835.9천원으로 연간 순수익이 2853.9천원이었고, 이는 순수익율이 60.9%에 달하였다. 즉 꽃사슴 보다는 엘크의 1두당 연간 순수익이 8.46배 높았다.(이는 '89년 12월 꽃사슴과 엘크 숫컷 성록 가격비 7.93배 보다 차가름).

암컷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면 꽃사슴의 경우 조수익에서, 성록이 1년에 1두를 분만하고 자육의 이유시까지 생존율이 76.25%이었으며, 자육의 가격('89.12월 송고평균)이 700천만원이라면, 1두당 연간 조수익은 533.8천원, 비용은 숫컷 생산비에서 절각비를 제외한 463.3천원으로 1두당 연간 순수익은 70.5천원이 된다. 엘크 암컷의 경우는 자육 1두 생산에 이유시까지 생존율 90%를 적용하고 자육가격('89.12월 송고 평균가격)이 6250천원 일때 연간 조수익이 5625천원이며, 생산비는 숫컷 생산비에서 절각비를 제외한 1763.3천원으로 추정하면, 연간 순수익은 3861.7천원이었다.(실제는 가축비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 있다.).

즉 꽃사슴은 숫컷보다 암컷의 연간 1두당 수입이 적으나, 엘크의 경우는 자육 가격이 비싸므로, 숫컷보다 암컷의 순수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3. 생산성 검토

사슴 사육에 투입한 자본과 노동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슴 사육에 투입한 고정 자본재(토지

시설, 건물, 장비와 가축 투자액)를 보면 꽃사슴은 1두당 2256.2천원, 엘크는 12306.2천원이며, 1두당 연간 유동자본 투입액은 꽃사슴이 233.5천원, 엘크는 800.5천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본 수익율은 꽃사슴이 13.61%, 엘크는 21.77%로 꽃사슴 보다는 엘크가 수익율이 높았고, 이들 모두 시중 은행 이자율 보다 높았으며 이는 이들에 대한 투자의 가치가 있음을 보였다(성록 숫컷 기준)

한편 투입 노동력에 대한 생산성은 조사농가의 1두당 연간 노동투입량(성록 숫컷 기준)이 꽃사슴은 77.4시간, 엘크는 184.7시간으로, 투입노동시간당 생산성((순수익+노력비/노동투입량)은 꽃사슴이 6.1천원, 엘크가 17.2천원으로 다른 부문보다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높음을 보였으며, 특히 엘크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대단히 높았다.

투입고정자본에 대한 회수기간을 보면, 꽃사슴은 6.7년, 엘크는 4.3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투입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높았다.

### 4. 녹용 1량(37.5g) 당 생산비 비교

농가 조사시 녹용과 녹혈 생산량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는 대부분의 녹용, 녹혈 판매 관행이 무게나 부피를 측정하여 판매하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사슴 1두 혹은 뿔 한쪽의 생산물당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록협회에서 추정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즉 양록협회 자료에 의하면, 꽃사슴의 경우 1년에 1두당 0.3kg(8양)의 녹용과 500cc의 녹혈을, 엘크의 경우 2.5kg(66양)의 녹용과 2400cc의 녹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 농가 평균 녹용 생산비를 계산하였을 때 꽃사슴은 녹용 1량당 생산비가 35.1천원, 엘크는 7.2천원으로 분석되었다.(이의 계산은 1두당 1년간 생산비에서 녹혈 수입을 제외한 것을 녹용 생산량으로 나누었음). 이를 녹용수입 가격과 비교하면 꽃사슴은 경쟁력이 없으나 엘크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았다. (녹용 수입가격(천원/양): 중국=8.8, 뉴질랜드=8.0, 미국=8.9, 소련=9.6, 서독=9.7, 알라스카=9.3, 캐나다=8.7 : 이상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 자료, 1988). 즉 우리의 경우 녹혈도 주요 생산물이기 때문에 녹혈에서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녹용부문에 대한 생산비의 부담이 적어져 녹용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나, 꽃사슴의 경우는 녹혈 채취량도 적은데다, 녹용도 생산량이 적어 완전 수입자유화가 되었을 때, 꽃사슴 사육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엘크 사육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 녹용, 녹혈의 수요가 안정된다면, 엘크 등 대형종 위주의 사육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국내산 녹용은 건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수입한 녹용은 관세 등 통관 부대비용이 추가되므로 이를 전부 계산해야 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국내산은 생녹용 상태로 수입산은 CIF가격으로 비교 하였음).

#### IV. 사육상의 문제점과 대책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사슴을 구입한 방법은, 조사 농가의 61%가 주위 사람은 소개에 의했으며, 14% 정도는 중개인을 통해서 구입했고, 11% 정도만이 오래동안 시장조사를 한 다음 구입하였다. 이들이 자록을 구입할 때의

문제점은 사슴가격이 비싸서 구입하기가 어려웠다고와 원하는 품종을 구입하기가 어려웠고, 믿을만한 곳을 찾기가 곤란하였다는 문제로 집약되어, 양록협회에서 품종심사와 등급 및 매매알선을 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 농가의 사슴에 급여하는 사료중 농후사료는 대부분이 낙농용 사료를 급여하였고, 극히 일부 농가만이 양록용 사료를 급여하여, 이것이 사슴의 영양균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료의 경우 대부분 산야초나 잡관목을 활용하면서 일부 벼짚을 급여하거나 겨울엔 아카시아잎, 칩잎과 건초, 농산부산물등을 구입 이용하였으며, 소규모 농가는 겨울 조사료의 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조사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재배사료의 겨울 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사료 급여량은 조사농가의 45%가 먹는대로 급여하고, 33%는 체중 비례로 급여하여, 사양체계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가 필요하였다.

사슴사육시의 질병으로서는 급만성장염 및 설사와 고창증, 그리고 출혈성패혈증, 골절상 등이 있었고, 특히 급만성장염과 설사가 가장 많았다. 질병 발생시는 거의가 자라 치료를 하고 있으나, 수술을 요하는 중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인근에 사슴에 대한 전문 수의사가 없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질병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주로 자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협회나 시험장의 전문가가 지역별 순회 강연을 통해 자가 처치 기술을 습득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자록이 이유전에 폐사하는율이 23.75%(꽃사슴)이나 되어 번식기술과 자록사육 및 관리기술의 보급으로 농가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다.

## V. 생산물 처리에서의 문제와 대책

조사농가에서 녹용과 녹혈의 채취는, 시작 초기는 수의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마취와 절각을 하다가, 상당한 경험을 쌓은후부터는 절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가 채취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절각시 마취제의 사용방법과 약제에 대해 교육이나 지도를 원하였고, 채취 방법에서의 비위생적인 문제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였다.

녹용과 녹혈의 판매 방법은 조사농가의 80.6%가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였고, 나머지도 알선판매를 하여, 농장 자체로 수요처를 확보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이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법 역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판매하는 농가가 37.1%, 아름아름으로 판매하는 농가가 34.3%, 주위 사람의 소개로 20.0%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비교적 부유층 등 녹용이나 녹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순수 농민들이 사슴사육이 경제성이 좋다고 하여 시작한 사람들은 수요처 확보를 못하여 자가 소비등으로 처리하는 등 생산물 판매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다.

녹용이나 녹혈 판매시의 문제점으로도 응답자의 28.6%가 판매가격 결정이 곤란하다 하였고, 22.9%가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다 하였고, 생산물 판매와 홍보 곤란이 각각 14.3%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처 확보 문제와 판매 가격 결정에서의 객관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일반 농가에서 소득원으로 양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산한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과 등급에 따른 가격결정의 객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양록 농가에서 생산한 자록의 판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였다. 즉 응답자의 65.2%가 아름아름으로 자록을 판매하였으며, 기타는 중개상인의 소개로 판매하였다. 자록 판매시의 문제점으로도 응답자의 45.5%가 판매체계가 불분명하며, 39.1%가 시장거래가 안되어 농가에서 판매가 곤란하다고 하였고, 이 때문에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도 어려웠다고 하였다. 즉 시장이나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녹혈, 녹용뿐 아니라 자록판매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간이나 단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외에 노폐물의 판매에서도 그것이 대부분 염소·중탕이나 개소주와 비슷한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결정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 사슴고기 요리의 전문점 등 판매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생녹용이 판매되지 않을 때는 적어도 도단위에서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건조·가공시설을 갖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단체에서 한의사나 한약 건재상과 경쟁 또는 홍보하는 체계도 필요하였다.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수요처 확보 방안은 생산자 단체에서 외국산 녹용과 비교한 홍보와 특히 한의사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였고, 다음이 품종을 개량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물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생산물 제품으로도 로얄제리, 인삼등과 같이 드링크 분말, 스프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였다.



## Ⅵ. 사슴 사육의 전망과 정책 건의

사슴사육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고 할때, 한마디로 어둡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농가의 소득원으로서 사슴사육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로서 현재의 가격수준에서 수요처만 확보된다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슴 수입이 개방된다 해도 사슴고기는 우리의 식생활에 쉽게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사슴 자체가 수입된다 해도 사슴가격이 하락하여 녹용생산비를 낮출 수 있어 소비확대를 시킬 수 있고, 녹용은 현재 국내 소비량의 80%정도가 수입되고 있다고 할때, 사실상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국내산 엘크의 녹용 생산비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사슴 생산물에 대한 소비 패턴이 녹용뿐 아니라 녹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혈을 수입한다 해도 국내산에 비해 경쟁하기가 어려운 소비구조(채취 직후 소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슴사육과 소비에서, 사육하는 사람은 일부 특수층이었다는 점과, 소비자나 한의원에서 중국산이나 시베리아산 녹용의 약효가 월등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생산물 판매 방식과 유통 구조하에서는 일반 농민의 소득원으로 사슴을 사육할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민의 소득향상보다 도시 자본이 농촌에 침투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정부당국에서 수입대체 작목으로서 사슴을 권장할때는 농민이 안심하고 사육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지, 양

록산업 자체의 진흥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 특히 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서 권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현재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도 사슴 수입이 자유화될 때 사슴가격이 하락하고 녹용가격도 하락하리라 예상하면 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응답자의 40.8%가 그대로 사육하겠다고 하였으며, 19.4%가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를 낮추겠다고 하였고, 13.3%는 타가축과 함께 사육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2.2%만이 사슴사육을 그만두고 다른 소득원을 찾겠다고 응답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가축의 사육농가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첫째가 유통체계를 확립으로 생산물을 쉽게 판매하기를 원했으며, 둘째가 사슴사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쫓고, 비육우와 같은 수준으로 해주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정착되기를 원했으며, 다음이 세금면제, 사슴사육기술지도, 가공처리 지원, 사슴에 대한 연구기구설치순이었다(表 6 참조).

앞에서 사슴의 품종별 경제성은 꽃사슴보다 엘크가 훨씬 높음을 보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엘크의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두터울때 엘크가 유리한 것이지만 소비계층을 무시하고 경제성만을 보고 엘크를 사육할때, 수요처를 찾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산자 단체나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한의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인 국내산 녹용과 녹각보다 외국산이 좋다는 견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대학의 한

表 6. 사슴사육의 정부지원 방향

지 원 내 용	빈 도 수	%
유 통 체 계 확 립	30	(28.0)
양 룝 육 성 정 책 수 립	28	(26.2)
세 금 면 세	21	(19.6)
사 슴 사 육 기 술 지 도	7	(6.5)
생 산 물 가 공 처 리 지 원	7	(6.5)
사 슴 관 련 연 구 기 구 설 치	6	(5.6)
기 타	8	(7.5)
계	107	(100.0)

주: 0. 빈도수는 (1 순위응답수×2)+(2 순위응답수×1)로 계산

### 支 會 案 內

의학과에서 부터 왔다면, 한의학과 교수들에게 이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담당토록 하며, 관행적인 녹혈, 녹용의 소비보다는 드링크제 등 새로운 제품 개발과 소비방법에 의한 소비 확대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토의 65% 정도가 산지이며, 이중 상당 부분이 잡관목 등 사슴 사료에 이용 가능한 것이 많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사슴사육도 녹용, 녹혈 뿐 아니라 녹육의 생산의 대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검토도 해야 할 단계이다.

즉, 사료로서 이용가치가 높으나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산야초나 잡관목을 활용하여 녹용, 녹혈뿐 아니라 녹육을 생산하였을때 녹용에 대한 생산비를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京仁支會長	申 鉉 光	032-93-9107
江原支會長	俞 炳 午	0361-55-2058
江原 總務	李 基 弘	0361-52-0659
忠北支會長	柳 重 烈	0341-57-5744
忠北 總務	柳 根 洞	0341-55-8746
溫陽支會長	李 鍾 權	0455-2-2840
溫陽 總務	姜 亨 植	0418-42-6400
大田支會長	申 興 淳	042-45-3392
大田 總務	羅 相 宰	042-822-5044
慶北支會長	安 承 明	0571-2-2098
大邱支會長	柳 在 永	053-66-7018
釜山支會長	李 炳 邑	051-754-3352
釜山 總務	朴 大 川	051-56-5900
全北支會長	金 亨 順	0652-84-2708
全南支會長	丁 鍾 鎬	0666-32-5555